

주제회의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가로수, 도시 생물다양성의 녹색혈관

최진우
[가로수시민연대 대표]

기후위기 시대, 가로수는 도시에 쾌적하고 시원한 녹음을 주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주고, 탄소를 흡수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걷고 싶은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가로수는 녹지가 부족한 도시에 야생동물 서식지를 제공하고 단절된 도시녹지를 연결하여 도시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이바지한다. 도시개발의 양극화와 사회불평등으로 지역 간 환경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어 가로수의 녹음량과 생육상태에도 불평등한 양상을 보인다. 가로수는 도시환경 및 시민건강의 녹색혈관으로서 도시 생물다양성 보전과 녹지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기오염과 폭염도 막고 탄소도 흡수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건강해야 하고 나뭇가지와 잎이 많이 달려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로수는 가혹할 정도로 과도하게 잘리고 베어지고 있다. 도시 생물다양성 보전에 가로수의 역할은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식지를 연결하는 것이다. 나무를 함부로 자르지 않고 잘 관리한다면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훨씬 더 많다. 큰나무를 무분별하게 베는 것은 나무의 바이오매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나무와 함께 어우러진 도시경관, 다양한 생물과 사람과의 상호관계, 아이들의 생태감수성도 사라지게 만든다.

우리 사회에서 가로수를 비롯한 공공수목은 시설물이고, 사유지의 나무는 재물로 처리되고 있다. 동물들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적 지위를 가져 보호받는 것처럼 도시의 나무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중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가로수가 도시 생물다양성의 안정적인 연결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자비한 가지치기 등 잘못된 수목관리 관행을 타파하고, 나무가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뿌리를 보호하고 토양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가로수는 우리가 집 문밖을 나가서 가장 첫 번째로 마주치는 자연물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도시는 동네 주변 가로수를 아끼고 보살피려는 시민의 마음과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무의 존엄성을 보장해주고 고유의 성장방식과 특색을 배려해줘야 한다. 나무가 도시라는 복잡한 공간에서 친구 동료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려면 시민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나무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상호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지도를 만들고, 일상에서 가로수를 아끼고 돌보는 시민의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